

# 수도사업자 구조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21세기 세계 물시장의 주도권 쟁탈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미래경제를 이끌 블루골드 산업으로 급부상한 바 있는 물산업은 2005년 기준 886조원 규모를 넘어서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산업은 아직 규모의 한계에 부딪혀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의 다국적 물기업에 의해 세계 물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이처럼 물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국내 수도사업자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여 본지에서는 상하수도 종사자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수도사업자 구조개편 이슈에 대한 연재 기사를 준비했다.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서 수도사업자의 체질개선은 불가피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각 분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